



# 올 마무리는 클래식으로

## 광주시향 '합창'·광주필 '해피 바이러스' 공연

한해를 차분히 마감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클래식 연주회가 마련된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30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을 무대에 올린다. '환희에 부친다'라는 실러의 시에 곡을 부친 합창과 독창이 들어 있는 교향곡 '합창'은 발레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전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송년 레퍼토리로 꼽히는 작품이다.

특히 많은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를 재미있게 봤던 이들이라면 감칠맛있게 들었던 '합창'의 전곡을 들을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다.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재직중인 김기덕씨가 지휘봉을 잡은 이번 연주회는 광주시립합창단을 비롯해 부산 시립, 청주시립 등 300여

명의 출연진이 함께하는 매머드급 무대다. 작품의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 4악장에서는 유희민(소프라노), 전진(알토), 한윤석(테너), 김기보(바리톤)씨가 출연. 아름다운 앙상블을 보여준다. 티켓 가격 1만원, 5천원. 문의 062-524-5086.

광주YMCA는 광주필하머닉 오케스트라를 초청, 이웃 사랑의 행복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YMCA 회원 송년음악회'를 갖는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 희망을 나누자는 의미로 마련된 이번 음악회의 타이틀은 '해피 바이러스'.

특히 이번 음악회에서는 YMCA 홍보대사인 산악인 김홍빈의 이야기를 다룬 영상물을 공연 중간 중간 상영, '희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등반 도중 열 손가락을 잃어버렸지만 좌절하지 않고 새로

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김씨는 현재 광주일보사 후원으로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 남극 원정'에 도전 중이다.

'기쁨을 위한 고난'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1부에서는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제 6번 '비창'을 들려주며 2부 '행복의 다리 기쁨'에서는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삼인곡인 주제의 '경이병 서곡', '라데초키 행진곡', '가브리엘의 오보에', '나팔수의 휴일', 베토벤의 '로망스' 등을 선사한다.

마지막 3부 '행복'에서는 광주 애육원생으로 구성된 '꿈을 품은 메아리합창단'가 많은 이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되돌려 주는 무대를 마련, 광주YMCA 합창단과 함께 '파리나라'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문의 062-234-007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연극 '밑바닥에서' 광주 대표 배우들 대거 참여

### 28일까지 씨디아트홀

광주에서 활동하는 개별 극단들의 작품을 볼 때 아쉬운 점 중의 하나는 넓은 배우층 탓에 조역급 출연진의 연기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런 불만을 잊게해줄 작품이 한창 공연중이다.

광주연극배우협회가 제작한 '밑바닥에서'는 광주의 대표 배우들이 대거 참여한 공연이다. 광주연극제 최우수연기상, 우수연기상 등을 수상한 정쟁한 배우들은 꼭 한 무대를 선보인다. 28일까지 전남대 정문 인근 씨디아트홀.

막심 고리키의 원작을 무대로 옮긴 '밑바닥에서'에서는 지하실 싸구려 여인숙이 무대. 이곳에 모여든 도둑, 알콜 중독으로 몰락한 배우, 매춘부, 아버지 도박사 등 인생 막장에 다다른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등장한다.

광주 연극계의 역량이 결집된 목직 한 작품으로 정통 연극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의자는 잘못 없다' 등의 작가로 서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 출신 선욱현씨가 각색을,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이행원 대표가 연출을 맡았다.

조영철·오설균·박영진·김상오·이기인·임준형·김하정·류지영·정순기·정은희씨 등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 2만원, 1만 5천원. 문의 062-521-75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2008 문화계 결산 ③ 미술

# 작가 해외진출 활기 대형 전시 인기몰이

2008년 광주·전남 미술계는 젊은 작가들의 해외 진출과 블록버스터 전 개최 등 반가운 소식이 이어졌다. 하지만 미술계의 관심이 일부 인기 작가들에게만 집중되고 신진 작가들은 데뷔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관중 현상은 여전했다.

경기 참체로 미술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한해 지역작가들은 국내외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로를 모색했다.

### 국내외 아트페어 참여

광주지역 설치작가 손봉채 씨와 미디어영상 작가 이이남 씨가 '제3회 스페인 세비야비엔날레'(10월2일부터 2009년 1월11일까지)에 출품해 유럽 소더비 관계자, 스페인 왕족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현재 이들은 독일 등지의 미술관과 갤러리들과 작품 판매와 전시를 협의 중이다. 이에 앞서 이씨는 독일에서 열린 '아트페어 2008'(4월16~



2008년 광주·전남 미술계는 젊은 작가들의 해외 진출과 대형 전시회 등 활발한 한 해였다. 사진은 지난 6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2008 올해의 작가 오승운'전 모습.

또 옛 전남도지사 공관도 지난 8월 상록전시관으로 변신했다.

대형 기획전을 통해 지역 관람객들의 발길도 사로잡았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7월16일~11월23일)과 '봄날은 간다'전(3월20일~5월14일)에는 각각 7만5천여명, 3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화단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또 지난 6월에는 법정 다툼으로 공식 추모행사가 미뤄졌던 고(故) 오승운 화백의 전시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려 구름관객이 몰렸다. 지난 2006년 자살로 삶을 마감한 이후 약 1년여 동안 유가족과 A화랑과의 법정 다툼으로 지역 관람객들에게 선보이지 못했던 그의 예술

혼이 2년여 만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 신진 작가 발굴 미흡

반면 신진 작가 발굴 프로그램이 부족해 개인전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작가들도 많았다.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이 지역 미술대학에서 해마다 200여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되지만 올 한해 이들의 개인전은 손에 꼽을 정도로 미약했다.

또 지역의 원로·중진 화가들의 타계 소식도 이어졌다. 원로 서양화가 배동신, 중진 서양화가 이강하, 한국화가 박은용씨 등이 세상을 떠나 미술계를 안타깝게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흑산도·홍도 절경 화폭에

현대사생회 24~30일 서울 동덕아트갤러리

신안군 흑산도와 홍도의 절경을 캔버스에 옮긴 전시회가 서울에서 펼쳐진다.

신안군은 "사생단체인 현대사생회 회원들이 24~30일 서울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제24회 현대사생회전-신안 흑산도·홍도 특별전'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에는 현대사생회 원로 화가 강길원의 '흑산도'를 비롯 안영목 '흑산도 아가씨', 송진세 '흑산도 진리포구 풍경', 최낙경 '홍도의 아침', 임장수 '예리항' 등 120명의 회원이 흑산도와 홍도의 매혹적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들이 선보인다.



강길원 작 '흑산도'

사생회 회원들은 지난 8월 14일부터 6일간 흑산도와 홍도의 바닷가와 선상, 육지 등에서 사생작업을 했으며, 신안의 미술 풀나무들에게 고급 화구세트를 선물하고 이들에게 사생 체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신안=조원민기자 wncho@

## 사진작가 이주한 개인전

28일까지 '갤러리 OBS'

사진작가 이주한(순천대학교 사진예술학과 교수)씨가 오는 28일까지 광주시 황금동 '갤러리 OBS'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이씨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치와와 사막에 펼쳐진 세계 최대의 모래언덕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 선보인다.

눈이 내린 듯 하얀모래가 펼쳐진 언덕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일본 오사카예술대학교와 미국 뉴



'White rhapsody from desert'

욕대학교 예술대학원을 졸업한 이씨는 일본, 미국, 서울, 대구 등지에서 8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62-228-244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국악학교 수강생 모집

빛고을국악전수관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제 27기 국악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의 모집 분야는 민요, 판소리, 가야

금, 대금, 장고, 고법(북), 해금 등 8개 초·중급반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강의는 주 2회로 내년 2월 2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마감은 31일까지며 각 강좌별로 20명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료는 3개월에 5만원이다. 문의 062-350-4553~7. /김미은기자 mekim@

## 미국유학의 모든 것, 메트로유학

미국유학의 모든 것, 메트로유학

1. 미국유학 상담 및 지원

2. 미국유학 비자 발급

3. 미국유학 항공권 예약

4. 미국유학 숙소 예약

5. 미국유학 보험 가입

6. 미국유학 생활용품 구매

7. 미국유학 현지 가이드

8. 미국유학 현지 생활

9. 미국유학 현지 취업

10. 미국유학 현지 생활

2008년 1월 10일

미국유학

특별 진행 모집

상담·고객센터 ☎ 02) 566-2510